

“함께 가입하면 금리 더 줘요” 친구 재테크 ‘쏠쏠’

IBK기업·신한 등 시중 은행들
SNS 통해 추천활용 고객유치 戰

은행들이 ‘친구 추천’ 기능을 이용해 우대금리를 얹어주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 기능은 고객마다 추천번호를 부여, 가입자가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이다. 일부 상품은 추천번호를 입력하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우대금리를 더 주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친구 추천’, ‘맞팔(서로 팔로우 하는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팔로워, 맞팔 개념을 도입한 ‘썸통장’을 판매 중이다. 자유입출금 예금상품 인 썸통장은 2명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 상품별 우대금리 제공 ‘친구 추천’ 기능〉 /각 사

은행	상품명	친구추천 기능	우대금리	연 최대금리 (1년)
기업은행	썸통장	썸타기-맞팔 이력 보유시	연 0.4%	4.00%
하나은행	셀프기프팅적금	추천인번호로 가입시	연 0.3%	3.10%
국민은행	KB그마트폰적금	추천인번호 입력 시	연 0.3%	2.50%
우리은행	위비꾸적금	추천인번호 입력 시	연 0.2%	2.40%
신한은행	알파레이디 적금	SNS지인추천 후 가입 시	연 0.4%	2.00%

모바일뱅킹인 ‘i-ONE(아이원) 뱅크’에서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수수료면제, 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썸타기’ 서비스를 통한 ‘맞팔’ 이력을 보유하면 고시금리에 우대금리(최대 연 0.4%)를 받을 수 있다. 썸통장 개설 시 만든 썸ID로 접속하는 방식이며, 한 번에 1인당 1명씩 지정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 납입 한도는 월 30만원 이내로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연 4.0%의 금리를 준다.

KEB하나은행도 셀프기프팅(Self-gifting) 적금에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 본인 추천번호로 친구 등 지인이 적금에 가입하면 양측 모두에게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친구추천 우대는 계좌별 1회다. 계약기간은 1년, 월 최고 납입 한도는 20만원, 연 최대 금리는 3.10%다.

KB국민은행도 스마트폰 전용상품 ‘KB 스마트폰적금’을 통해 추천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추천번호를 적고 가입하면

추천인과 피추천인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0.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은 6~36개월이며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각종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 시 연 최고 금리 2.5%, 2년 이상 3년 미만은 2.5%, 3년물의 경우 최고 연 2.8%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위비꾸적금’도 친구 번호 등록 시 추천인과 피추천인에게 각각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가입기간은 6개월, 12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년물 상품의 연 최대 금리는 2.4%다.

신한은행은 SNS를 통해 친구에게 추천해서 친구가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알파레이디 적금’을 운영 중이다. SNS를 통해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한 뒤 상대가 가입하면 연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

월 이하로, 월 납입금액은 50만원 한도다. 연 최대 금리는 1년 물은 2.0%, 2년물 2.20%, 3년물 2.3%다.

이처럼 은행들이 금융상품 가입 시 ‘친구 추천’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객 유치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이용 고객이 늘면서 요즘은 스마트폰뱅킹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며 “친구추천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가입 시 추천번호만 입력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엔 가족, 지인 등을 비롯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모르는 사람과 추천인번호를 공유하며 우대 금리를 받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입소문을 통해 상품 홍보가 되는 셀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노사관계·일자리 창출에 매진”

손경식 경총회장 취임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제7대 손경식 경총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업 경영과 경제단체장을 거치며 쌓은 경험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노사정 대화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대중소 및 공공·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경총을 만들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손 회장은 “기업이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때로는 쓴 소리도 미다않는 조력자로서 회원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함께 하는 경총을 만들 것”이라며 회원사의 지

작년 저축銀 순이익 1조 돌파 ‘사상 최대’

79곳 순이익 1조674억

전년 동기比 24% 증가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조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6000억원이 넘게 늘었지만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같이 늘면서 영업이익은 2586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59조7000억원으로 대출금이 늘면서 2016년 말 대비 14.1%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4%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총여신 연체율은 4.6%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4.7%다. 건설업(4.2%p↓),

〈주요순익 현황〉

구분	2016년(A) (2016.1~12월)	2017년(B) (2017년1~12월)	증감 (B-A)	증감률
영업순익(A=a+b-c-d)	9,462	12,048	2,586	27.3
이자이익(a)	31,267	37,463	6,196	19.8
비이자이익(b)	△1,524	△2,761	△1,237	81.2
차 판매 및 관리비(c)	11,329	11,630	301	2.7
감 대손충당금 전입액(d)	8,952	11,024	2,072	23.2
영업외손익 등(B)	△857	△1,375	△518	60.4
당기순이익(A+B)	8,605	10,674	2,068	24.0

/금감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4.1%p↓), 부동산업·임대업(2.1%p↓) 등에서 연체율이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로 가계신용대출(2.1%p↓), 주택담보대출(1.2%p↓)이 하락해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전년 말 대비 2.0%포인트 개선됐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9%로 전년 말 대비 7.7%포인트 상승했으며, 모든 저축

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로 전년 말 대비 0.36%포인트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금리인상이나 규제강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며 “잠재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줄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하며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대표단(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5일 평양에 도착했다.

▲ 가수 정용화와 조규만, 조권이 경희 대학원으로부터 입학과 학위 취득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블라인드 채용이나 열린 채용 등 지원자의 스펙보다 역량중심 채용 경향이 확산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은 여전히 취업 스펙을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편의점에서 판매

하는 식품, 생필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금융실명제 시행후(1993.08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제약업계가 3월 주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 선임에 나섰다.

▲ 지난달 한국지엠(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며 한국지엠의 지난달 판매실적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4위로 밀려났다.

▲ LG전자가 더욱 완벽해진 화질과 인공지능으로 한 차원 더 높인 ‘올레드(OLED) TV’를 출시했다.

금타 노조 총파업 선언… 해외매각 결사 반대

〈금호타이어〉

9일 부분파업 이어 15일 총파업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채권단 방침에 반발해 오는 9일 부분파업을 하고 15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5일 “채권단이 해외매각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9일 광주, 곡성, 평택공장서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15일 하루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총파업 전까지 쟁의대책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파업수위와 방향 등을 결정한다”며 “15일 총파업 출정식 때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3일 6시간, 4일 2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노조는 3일 기자회견에서 “자구안을 공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영광동사거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에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자 회장과 곡성지회장이 올라 고공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 폐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외매각 후 ‘먹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쌍용차

/양성운 기자 ysw@

사태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지엠의 경우처럼 몇 년 후 한국 내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인가 걱정이다. 실제 산은은 더블스타와 계약 과정에서, 더블스타는 매각제한 3년, 채권단은 5년의 매각 제한 규정을 달았다.

문제는 5년 이후다. 매각 제한 규정에서 벗어난 이후 한국 내 공장 철수를 하는등 GM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더블스타와 협상이 대안이라는 발표는, 채권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민의 고용, 지역경제 혼란은 고민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결과”라며 “해외매각으로 우려되는 제2의 지엠, 쌍용차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지키기” 광주 범시민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